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유가 100달러 시대 오는가
- 오일머니의 美 국채 수요 급감으로 달러 약세 가속화 전망

## 경영 노트

- 창업자 CEO 프리미엄

## 사회 트렌드

- 10년 후 뜰 새직업 ; ‘실버 시티’, ‘사이처’
- 산업 유치인(Industrial Recruiter)

## 저널 브리프

- 중남미 시장의 성장과 리스크

## 洗心錄

- 코끼리 훈련

□ 유가 100달러 시대 오는가

- 4월 19일 현재 두바이(Dubai) 유가는 배럴당 65.7달러로 전년말의 53.2달러보다 약 23.5% 상승함
  - 같은 기간 WTI 先物 가격은 배럴당 61.0달러에서 74.1달러로 21.5%, Brent 先物 가격은 59.4달러에서 72.7달러로 22.4% 각각 상승함
- 국제 유가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성장률 하락, 물가 불안 등을 유발함 (원유도입단가 배럴당 10달러 상승시 : 유가 요인만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률 1.1%p 하락, 물가 1.5%p 상승, 무역수지 약 80억 달러 악화)
  - 간접적으로 내수 및 대외 수요 부진과 비용 상승에 의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 가계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을 유발함

< 두바이 유가의 연평균 및 기말 가격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4.18
연평균	22.8 (-13.1%)	23.9 (4.6%)	26.8 (12.2%)	33.7 (25.9%)	49.4 (46.3%)	58.7 (18.9%)
기말	18.1 (-12.2%)	26.5 (46.2%)	28.5 (7.5%)	34.2 (19.7%)	53.2 (55.8%)	65.1 (22.5%)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 ) 내는 전년 평균 또는 전년말 대비 상승률임.

□ 오일머니의 미 국채 수요 급감으로 달러 약세 가속화 전망

-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일머니의 달러 매도로 2006년말까지 엔/달러가 108, 달러/유로가 1.28에 이르는 등 달러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산유국의 미국 국채 매입액은 2004년 중 1,00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00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함
  - 이러한 오일머니의 미국채 수요 급감은 미국과 주요 선진국간의 금리 격차 축소 예상과 정치적 이유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달러화 약세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향후 오일머니가 미국에서 흘러나와 아시아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아시아 통화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져 아시아의 대미 수출이 둔화될 것임. 따라서 아시아 역내 무역 강화로 약 달러 시대에 대비해야 함

## □ 창업자 CEO 프리미엄

- 창업자가 CEO로 있는 기업의 실적이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기업들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포춘’은 ‘2006 포춘 500대 기업’ 중 27개 창업자 CE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FedEx, 애플 컴퓨터 등 27개 창업자 CEO 기업의 1995~2005년 주가 상승률과 이익 증가율은 각각 18.5%, 19.6%로서, 포춘 500대 기업 평균치인 11.5%, 11.7%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2,3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50여 개 창업자 CEO 기업의 1993년 이후 주가 상승률이 전체 증시 상승률보다 8%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
  
- 회사에 대한 높은 애정, 장기적인 안목 등 ‘창업자 CEO 프리미엄’이 강력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창업자 CEO 기업의 탁월한 실적은 창의력과 위험을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과 자신의 생애를 걸고 일군 회사에 대한 오너십에 기반하며,
  - 특히 창업자 CEO들은 단기적인 비용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경영에 임하는 공통적 특성을 보임
  - 실제로 창업자 CEO 기업들이 ‘경영 용병’으로 일컬어지는 전문경영인 CEO 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R&D 투자비도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됨
  
- (시사점) 주인의식에 바탕을 둔 기업가 정신을 통한 성과 제고가 필요
  -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 생존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주인의식의 고취를 통해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변혁적 리더십을 배양해야 함

## □ 10년 후 뜰 새직업 ; ‘실버 시터’, ‘사이처’

- 실버시터(Silver Sitter)는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 대신 돌봐주는 ‘경로 도우미’를 말함
  -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발표한 ‘10년 뒤 10대 유망사업’에서 실버시터가 1위로 뽑힘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05년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실버 산업 관련 신직종이 꾸준히 생기고 있음
  - 실버시터는 안전 관리, 질병 건강 관리, 노인상담 지식 등을 갖춰야 함
- 이번 10대 유망 직종으로 선정된 직업의 키워드는 실버와 건강,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공동 2위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와 운동치료사가 차지했으며, 폐업컨설턴트(4위), 장기이식 코디네이터(5위), 사이버경찰(6위), 노인전문간호사(7위), 도청방지 전문가(8위), 놀이치료사(9위), 사이처(10위)가 10위권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장기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 기증자, 수혜자와 함께 이식 과정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
  - 사이처란 사이버(Cyber)와 티처(Teache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를 말함
  - 놀이치료사는 사회·정서적 적응문제로 성장발달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놀이를 통해 진단, 치료하는 전문가
  - 운동치료사는 환자의 질병에 맞는 가장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종임

## □ 산업 유치인(Industrial Recruiter)

-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국내 혹은 해외로부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사람을 말함
  - 많은 작은 도시들이 경제난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임
  - 이들은 경제학자이자 마케터이며 도시계획가이자 세일즈맨의 성격을 가짐

## □ 중남미 시장의 성장과 리스크\*

- (중남미 국가의 성장) 최근 라틴아메리카는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빠른 경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국가 부채 급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들의 부채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브라질 :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인한 수출 증가로 올 1월에는 IMF 차관 155억 달러의 조기 상환에 성공했으며, 2월에는 66억 4,000만 달러의 나머지 부채를 전부 상환함으로써 2002년 GDP 대비 40%에 달했던 국가 부채 비율이 올 들어 13.5%로 급락함
    - 아르헨티나 : 올 1월에 IMF 차관 95억 달러의 조기 상환 등에 힘입어 2002년 GDP 대비 118%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42.5%로 크게 하락함
  - (해외 자금 유입 급증) 이 지역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세가 두드러져 2004년에는 총 39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과거 실적치(2003년 4억 3,600만달러, 2004년 9,780만 달러)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규모임
- (리스크) 원자재 수출 일변도에 의한 성장 구조 등이 장기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급감할 경우 중남미경제는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큼
  - (원자재 수출 일변도에 의한 성장)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원자재 수출 중심 성장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 것임
  -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멕시코의 전력 사업, 브라질의 공공연금 등 중남미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지역 성장에 있어서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진) 브라질의 경우 2005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실질 공공지출액의 9% 정도에 그치는 등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부진한 형편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4.2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코끼리 훈련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습관에 불과한 것인데, 도리어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영택 교수의 <이노베이션 스토리> 중에는 코끼리 훈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코끼리의 경우 노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르기 위해 어릴 때부터 ‘복종과 훈련’(Subjugation and Training) 과정을 시작한다. 어린 코끼리를 밝은 오렌지색 줄로 나무에 묶어 두면, 어린 코끼리가 처음에는 풀려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수많은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나면, 어린 코끼리는 포로가 된 현실에 체념하고 만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오렌지색 줄의 완전한 포로가 되는 것이다.

코끼리가 장성함에 따라 그의 힘도 백 배 이상 증가하고, 때때로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체인을 물어뜯고 마구 날뛴다. 이제는 코끼리의 힘이 세어져서 그를 묶어 놓은 나무가 뿌리채 뽑힐 지경이 된다. 그러나 주인은 코끼리를 다스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주인이 오렌지색 줄을 들고 나오면, 거대한 코끼리는 포로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 경험한 오렌지색 줄의 위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체념하게 만드는 ‘오렌지색 줄’이 존재한다. 사업계의 영웅,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 국가적 지도자 등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안 될 리가 있나”(Why not?)라고 반문하고, 성공을 믿으면서 앞서 나아간다. 그들은 어떠한 인지적인 장벽도 스스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렌지색 줄과 같은 성취의 장애물이 그들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결코 산의 높이를 재지 말라.  
정상에 오르면 그 산이 얼마나 낮은지 알게 될 것이다.”**

- 다그 함마르셀드(1905~1961) : 스웨덴 정치가, 유엔 前사무총장, 196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